

[국제전기전력전] 상원, 자동소화장치 내장 수배전반 출품

[김기홍 2017-05-12]



상원엔지니어링(대표 정정순)은 5월 10일(수)부터 12일(금)까지 삼성동 코엑스(COEX) C홀에서 열리는 '2017 국제전기전력전시회'에 참가해 열감지 튜브를 적용한 자동소화장치 내장형 수배전반을 선보였다. (사진: 열감지 튜브가 적용된 자동소화장치)

이 회사는 전력시설물 관련 기술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수배전반을 비롯한 시설물 설계, 제작 등 전력 시스템 구축 전문 기업이다. 고·저압 배전반, 분전반, 전동기제어반, 유량계, 계측제어장치, 빌딩제어장치 등의 제조와 가스식 자동소화장비, 가스계 소화설비 등 방재사업, 전기공사, 전문소방공사, 정보통신공사 등을 수행하고 있다.

이번 전시회에 선보인 자동소화장치가 내장된 수배전반은 열감지 튜브를 통해 화재를 초기에 감지하고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화약제를 방출하는 시스템으로 초기에 화재를 진압함으로써 방호공간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특히, 수배전반 설비는 많은 기기를 연결, 조합하기 때문에 변압기를 비롯해 기기 접합부 등에서 발열로 인한 화재의 위험이 높고 화재가 발생하면 직접적인 손실뿐만 아니라 복구지연에 따른 사회적, 경제적 간접 피해가 심각해 이를 초기에 진압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중요하다.

자동소화장치에 적용된 열감지 튜브는 장시간 노출에도 내성이 강하고 유연하며 인장강도가 우수하고 섭씨 100~110도에서 정확하게 반응한다. 또, 열 또는 화염에 의해 생성된 복사 에너지가 튜브와 접촉하면 최고 온도부에서 파열, 발화지점에 방출한다.

육상수 부장은 "우리회사의 자동소화장치는 소형, 경량화로 구조가 간단하며 독성이 적고 소화효율이 높은 친환경 약재를 사용한다"며 특히 "별도의 전원이 필요 없으며 오작동 우려가 적고 유지관리가 편리하다"고 설명했다.



(사진: 자동소화장치는 화재발생 시 약 15초 이내에 화재진압이 완료된다)



(사진: 자동소화장치가 내장된 배전반)


한편, 한국전기기술인협회와 코트라가 주최하는 '2017 국제전기전력전시회'는 전기전력 산업, 스마트 그리드, 발전 및 원자력플랜트 산업, 중전기 산업을 융합한 전기전력분야 전문전시회로서 관련 유관 기관 및 단체, 전력공기업, 전기설계, 감리, 안전관리, 유지보수 분야 등의 주요 발주처와 End-User 3만여 명이 참관하는 전시회다.

→'2017 국제 전기전력 전시회' 바로가기



Global News Network 'AVING'
(www.aving.net)

Copyright 2017 NSBS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출력하기 닫기